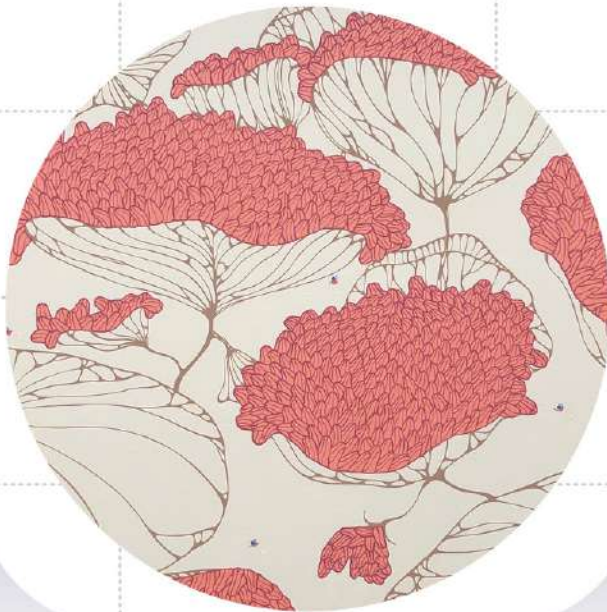


**HCF MAGAZINE**

화성시문화재단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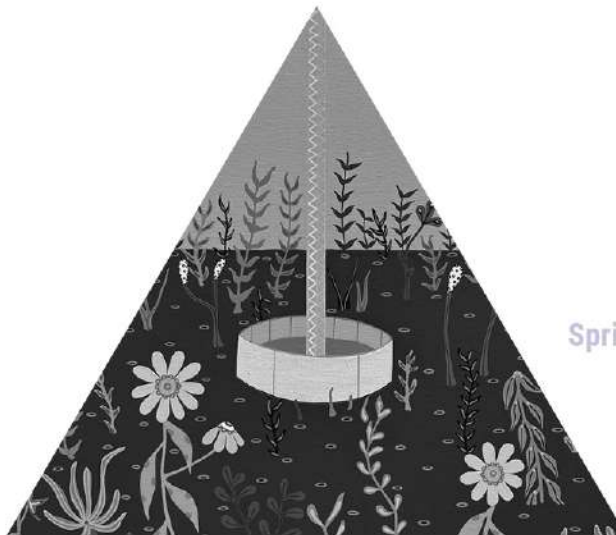


**INDEX RELATIONSHIP**

인덱스 관계

**DIGITAL LAV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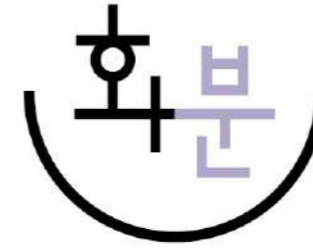
#안정 #치유 #균형 #평은



2023

Spring ( 봄과 여름 사이 ) Summer

**VOL.58**



HCF MAGAZINE

2023  
Spring ( 봄과 여름 사이 ) Summer

VOL.58



최유희 Choi Yu Hee | Silent Invasion | 145.5x97cm | acrylic on canvas | 2021

**DIGITAL LAVENDER + INDEX RELATIONSHIP**

**COVER STORY**

점은 선으로 이어진다. 선의 흐름은 자유롭다. 휘어지기도, 끊어지기도 한다. 각자의 세상을 품은 외로운 개체들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끌어 당긴다. 그렇게 이어진다. 공간과 사람, 시간과 사물이 뒤섞여 무수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변형을 꾀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나다움을 찾는 것, 그게 우리다. 어떤 궤적을 그려나갈 것인가?

개척은 당신의 몫이다.

**작가노트** 누군가가 쉽게 내뱉은 말에 버티고 버티다 결국 넘어질 수 있다. 혐오는 현실이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당연한 일조차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당하지만 정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버티고 나아가야 한다. 불쾌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빈정거리거나 냉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드러낼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상대의 기회를 박탈하고 무력하게 하며,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행위를 평가절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문득 우리는 잘살아가고 있는가...

06



14



38



54



**C** The 담다 × 문화를 담다

**06 INTRO**

단어의 조각이 모여  
빛어지는 화분

**12 INCEPTION**

관계의 분류 - 무한한 확장  
인덱스 관계

**14 FOCUS**

화성의 봄에 빠져드나 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들이  
5월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

**20 INTERVIEW**

도전으로 하나 되는 청춘,  
열정으로 융합하는 꿈의 무대  
화성시 청년예술단

**26 TALK**

문화 X 유행가 : 시대를 노래하다  
온 세상이 뉴진스

**30 LIVE**

번이와 복제를 반복하는 욕망의 기록  
아티스트 최윤희

**G** The 가다 × 그곳을 가다

**36 WALK**

시간의 길목마다 달리 보이는 풍경들

**38 TREND**

아름다운 서해에서 즐기는  
하늘길 낭만 데이트

**42 TICKET**

찬란한 노을 선선한 바람  
음악이 함께 머무는 곳  
Music Stay 2023

**46 DRAW**

한계를 벗어나라 배움에 끝은 없다  
화성시민대학

**48 TRAVEL**

반짝이는 '진주'의 예인(藝人)  
내밀한 삶의 궤적을 기록하다

**D** The 하다 × 동행하다

**54 HELLO**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축제  
2022 '축제기획학교' 시민기획자  
이원재·신지영·김민숙

**58 ARCHIVE**

이국적인 마리아 팔딱이는 생기를 머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62 PEOPLE**

화성인의 대답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분류하나요?"

**66 CULTURE &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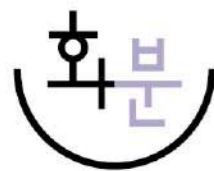
화성시문화재단 상반기 문화소식

**72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73 PLACE**

배포처



HCF MAGAZINE 2023  
봄과 여름 사이 VOL.58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디자인	더페이퍼(031-225-8199)
발행인	김신아	홈페이지	hcf.or.kr
편집본부장	김미라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편집팀장	최윤정	전화	031-8015-8112
기획·편집	차영은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NTRO

단어의 조각이 모여 빛어지는 화분

알맞은 단어들 이 버무려져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켜켜이 쌓여 하나의 세상이 되었고 매일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고귀한 성취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빛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꽃과 함께 <화분>에 담았습니다.

화분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기를, 당신의 고민이 예술로 치유되길, 그래서 삶이 윤택해지기를. 우리의 바람을 이곳에 담아봅니다.



취향 공감 판도

인덱스관계

문화자산 무이지경

화성벚꽃이축제

상상 개성 공생

관현악 보컬

마술 클래식

발레 트로트

동요

국악 판곡

퍼포먼스

마티네

축제기획학교

그림책

인문학

꽃

공공성

문화

수업

전시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취향 공감 판도

인덱스관계

문화자산 무이지경

화성벚꽃이축제

상상 개성 공생

관현악 보컬

마술 클래식

발레 트로트

동요

국악 판곡

퍼포먼스

마티네

축제기획학교

그림책

인문학

꽃

공공성

문화

수업

전시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문화

세계적인 특별한 사로잡을 떠오르는 들썩이는 꿈틀대는  
 갈구하는 끊임없이 선사하는 이색적인 친숙한 만나는  
 찾아가는 최고의 우수한 변화하는 생각나는 앞장서서  
 치열하게 담백한 즐기는 다채로운 하나되는 마련하다 공  
 존하는 과감한 버텨내는 생경한 진솔하게 세밀하게 각  
 인시키는 이견상 최은서 윤지아 최유희 김민숙 신지영 이  
 원재 이은주 이새미 한송이 박종선 임혜금 이덕녀 김정  
 우 차영은 앤서니브라운 류진스 서태지 빅뱅 김연자 요  
 요미 최정훈 거머 김영하 임은하 소녀시대 트와이스 레  
 드벨벳 아이브 김현철 김뜻돌 람블희쉬 안치환 경서에  
 지 꽃보다남자 서정민잡 한운섭 이은결 나상현씨밴드  
 너드커넥션 설창수 청담스님 이봉주 정민섭 성계옥 황영  
 두 최계락 김해솔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  
 터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시미디어센터 반석아트홀 찾  
 아가는공연장 진안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송산도서관 송  
 방천 궁평아트뮤지엄 반석산 화성시민대학 전곡항 동탄  
 호수공원 제부도 라크몽 창문아트센터 민들레연극마을

花



화분에 담아야 제 가치를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분을 주고 정성으로 가꾸면 이것은  
 계절에 맞춰 그 모습을 바꿔 다채로운 장면을  
 선사합니다. **목적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늘 생동하고 있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  
 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일상을 살아가  
 는 예술인의 이야기, 잊지 못할 음악과 미술,  
 자연과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들**을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꿈 같은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화분은 당신에게  
 싱그러운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여기에 녹여진 이야기 꽃은 따뜻한 관심이  
 있다면 시들지 않을 겁니다. 감상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단지 우리는 진심을 전하겠습  
 니다. **예술을 머금어 문화를 꽃피웁니다.  
 화분은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입니다.**

粉

12 INCEPTION

관계의 분류 - 무한한 확장  
인덱스 관계

14 FOCUS

화성의 봄에 빠져드나 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나들이  
5월 카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

20 INTERVIEW

도전으로 하나 되는 청춘,  
열정으로 융합하는 꿈의 무대  
화성시 청년예술단

26 TALK

문화 X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온 세상이 뉴진스

30 LIVE

변이와 복제를 반복하는 욕망의 기록  
아티스트 최윤희

Capture

The 담다 X 문화를 담다

INCEPTION

관계의 분류 - 무한한 확장  
인덱스(Index) 관계

C:\ 관리자: C:\H\MAGAZINE: 만들기-분류하기-관리하기

HCF MAGAZINE - 화성시문화재단 화분 VOL.58

[Version 2023. 봄과 여름사이]

Copyright (C) 2018. 화성시문화재단.

All rights reserved.

connect : 문화예술을 만나는 곳 : www.hcf.or.kr/hcf/1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화분》

《화분》 이 생성되었습니다.

분류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경로가 다양해지며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수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다르듯 우리의 인간관계는 '목적'에 의해 분류되고, '우연'에 의해 확장됩니다. 인덱스 관계는 필요에 따라 인덱스 불이듯 분류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 . .

《화분》 이 '봄과 여름사이' 를 발행했습니다.  
《화분》 이 당신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이 당신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화분》 이 화성을 언급했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 . .

당신은 이제 《화분》의 팔로워로 분류되었습니다.

《화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KeyName [카테고리]

C : The 담다×문화를 담다 \ page.10

G : The 가다×그곳을 가다 \ page.34

D : The 하다×동행하다 \ page.52

Welcome



FOCUS

화성의 봄에 빠져드나 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들이  
5월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

가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바람이 살랑거릴 때면 놀러 가고 싶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많은 5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5월 내내 축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일루서니스트 이은결, 트로트 여왕  
김연자 등 다채로운 공연 퍼레이드

5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재단의 특별 기획공연이 준비되었다. 마술, 클래식,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눈과 귀가 행복한 5월을 시민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날에는 일루서니스트 이은결의 특별한 마술 공연이 찾아온다. 이은결은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형화된 마술에서 벗어나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국내 마술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이다. 5월 5일(금) 오후 2시 반석아트홀에서 열리는 <Youngster! 이은결 스페셜>은 어린이·청소년 계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양질의 기획공연이다.

이어 5월 31일(수) 오후 5시 반석아트

홀에서 개최되는 <키즈콘서트! 클래식 in 발레>는 온 가족이 즐기는 클래식 키즈 콘서트다. 클래식 발레 명작으로 손꼽히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의 음악 연주와 함께 발레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몸짓과 함께 정통 클래식의 멋진 협연이 기대된다.

5월 7일(일) 오후 2시 화성아트홀에서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부모님을 위한 공연도 열린다. 바로 요즘 대세 장르인 트로트 콘서트 <황금빛 내 인생>이다. '아모르 파티' 열풍의 가수 김연자, 트로트 장르에서 떠오르는 가수 요요미, 최정훈까지 어깨를 들썩일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실력파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특별한 날,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는 선물이 될 것이다. 기획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성시 M.I.H 예술단’에서 명칭이 바뀌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공연도 5월 19일(금)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만화영화 OST, CM송 등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들을 새롭게 편곡하여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청년 예술인들이 펼칠 에너지 가득한 무대가 벌써 기대된다. ‘찾아가는 공연장’은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에 화성시 곳곳에서 열린다. 12일(금) 향남2지구 1호 광장, 19일(금) 수노을중앙공원, 26일(금) 다람산공원, 27일(토) 남양뉴타운 4호공원에서 퓨전국악, 대중음악, 마술,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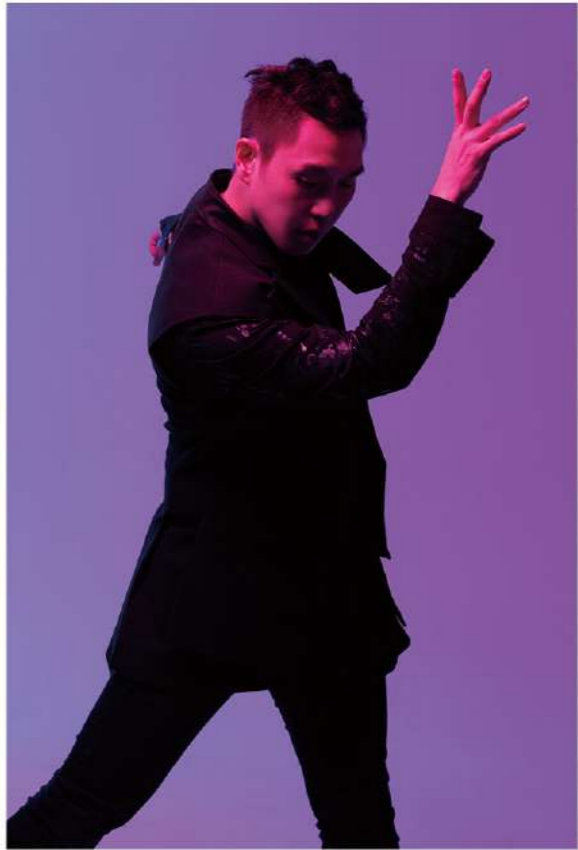
**가까이에서 보고 즐기는 문화예술  
고품격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기획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는 <원더랜드 뮤지엄 전展>이 오는 5월 17일(수)까지 진행된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동탄아트스페이스와 동탄아트스퀘어에서 진행 중인 전시로 대표작 원화, 설치 조형물 및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한 아트 작품 등 2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아시아 최초로 신작 《넌 나의 우주야》, 《어니스트의 멋진 하루》 원화 작품도 공개한다. 이와 연계하여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는 5월간 앤서니 브라운의 유명 작품들을 북 큐레이션 전시로 선보인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오는 6월 1일까지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펜+수채화(어반스케치)’ 강좌를 진행하고 있

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강좌로 펜드로잉, 채색 등 그림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센터 입주 작가들로 구성된 ‘꿈꾸는 물빛 수채화’와 천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및 친환경 자연염색을 주제로 작업하는 ‘다정한 직물’은 5월 2일(화)부터 29일(화)까지 제부도 서해랑(해상케이블카) 3층 전시실에서 전시 <봄: 또 다른 시작>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센터 오픈키친에서는 가족이 함께 우리 쌀 수확미를 이용해 담백함이 가득한 마음을 담은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쌀 구움 베이킹’ 특강을 5월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STAY, PLAY, MEDIA>를 5월 11일(목), 18일(목), 25일(목)에 3회차 운영하며, 그림책부터 카메라, 컴퓨터까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경험하고 오감을 활용하는 마을 기반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봄: 또 다른 시작> 안내 포스터
- 2~3.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는 <원더랜드 뮤지엄전>
4. <원더랜드 뮤지엄전>에 마련된 체험존
5.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한 하루  
화성에서 만나는 화려한 축제**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매일 지나치는 우리 동네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축제일 것이다. 길고 우울했던 코로나19 시기를 환기하며 시민들에게 일상 속 활기를 불어넣었던 <화성시 가족사랑축제>가 올해도 5월 13일(토) 동탄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오감만족 체험, 플라마켓, 푸드트럭 등 먹거리, 체험거리부터 시민 공연과 이벤트, 가수 거미, 안치환, 경서예지 등이 출연하는 공개방송, 루나 분수쇼까지 이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화성시 대표 수공예 마켓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은 5월 20일

(토) 오후 1~8시 향남2지구 1호 광장에서 열린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소개하는 마켓형 문화 행사다. 마켓이 열리는 날에는 전국 생활문화 수공예 공방들의 한 데 모여 전시 및 체험,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작가들의 개성이 묻어있는 갖가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 버스킹 공연 및 SNS 이벤트 운영 등도 함께 진행되어 즐거움을 더한다. 동탄 홍사용 문화거리 일대에서는 5월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사용 문화거리 주민협의체와 함께하는 시민 기획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된다. 미디어월에서 함께 관람하는 '다리 밑 영화관', 영화와 관련된 음악을 생생히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 콘서트',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누구나 여유를 즐기고 쉬어갈 수 있다.



**책도 읽고,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하고!  
다양한 모습의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화성시문화재단의 운영 도서관들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취향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션과 원화 전시는 물론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인형극 등의 공연이 마련됐다. 이에 더해 각종 만들기 일일특강 체험 및 이벤트, 작가 초청 강연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 5월 6일(토) 특별한 가족공연이 열린다. 5월 13일(토)에는 <달달이 인문학 5월 명사특강>을 통해 김영하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김영하 작가는 지난 1995년 계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6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했고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등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진안도서관에서는 5월 6일(토) SF 성장소설 <복제인간 윤봉구>를 쓴 임은하 작가 강연이 열린다. 5월 14일(일)에는 도자기 핸드페이팅 특강과 유리 전사지 클래스 등을 진행한다. 송산도서관에서는 5월 4일(목)부터 20일(토)까지 도서관 로비에서 한운섭 작가의 전시를 개최한다. 한운섭 작가는 극작가와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전국창작희곡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발표한 희곡 작품으로 <굿모닝 파파>, <조용한 식탁> 등이 있다. <봉주르, 두르>로 제1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해리엇>, <짜장면 로켓 발사> 등의 동화를 썼다.

기념일이 많은 5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5월 내내 축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

13일(토)에는 가족 뮤지컬 <해리엇>을 공연하며, 한운섭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한다. 노을빛도서관에서는 5월 21일(일) 가족인형극 <도치의 모험>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 도서관에서도 니들 인형 공예 키트 제공 등 각종 이벤트, 다양한 일일특강 및 강연 등이 펼쳐진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예약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성시문화재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기며 가족 간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오픈 키친



홍사용문화거리에서 열린 시네마 콘서트



INTERVIEW

도전으로 하나 되는 청춘,  
열정으로 융합하는  
꿈의 무대

# 화성시

# 청년 예술단



윤지아



이건상

최은서



이 이야기는 화성 청년 예술인들의 뜨거운 분투기다. 문화예술 향유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도전기이며, 화려한 비상을 위해 꿈틀대는 성장기다. 간절했기에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화성시 청년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글 배미진 사진 김건우

**SINCE 2020**  
화성시 청년예술단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독려하고자 공공예술단체를 창단했다.

2020년에 첫발을 댄 '화성시 M.I.H 예술단'은 올해 '화성시 청년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관현악, 국악, 보컬 분야의 예술인 50여 명을 한데 모았고, 반주자와 사무 인원까지 모집해 탄탄한 운영 체계를 수립했다.

작년에 관현악 지휘를 맡은 이진상 음악감독이 선임되며 보다 안정된 예술단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진상 음악감독과 윤지아 연주자, 최은서 코디네이터에게 2023년 화성시 청년예술단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들었다.

**각자 맡은 업무는 무엇인가요?**



올해 음악 감독과 연주 지휘를 맡았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무대 구성까지 전반적인 예술단 운영을 총괄하죠.



저는 2020년 예술단 초창기 때부터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코디네이터에 지원하게 됐어요. 관현악, 국악, 보컬 파트에 각각 코디네이터 1명이 배정되는데 저는 관현악 파트를 담당하고 있죠.



국악단에서 타악을 맡고 있어요. 원래 연희 전공이었고, 풍물놀이를 주로 하는데 국악단에서는 장단도 같이 합니다.

**작년에 이어 화성시 청년예술단에 재지원한 이유는?**



작년 활동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웃음) '존중'이라는 철학을 가진 운영팀과 잘 맞기도 했고요. 단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좋은 연주를 많이 선보였어요. 단합력도 우수하죠. 그런 기억들이 쌓여 다시 이곳으로 오게 했네요.



연주자로 활동할 때 새롭고 재미있는 연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소통이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올해에는 코디네이터로서 연주와 행정 모두 만족할만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까지 당신(you)만을 위한 공연이었다면 이제는 모두(we)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문화예술 정책학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도 했고요. 한 번 사는 인생, 똑같은 길을 걷기보다는 재밌게 살아도 좋잖아요.



지난해 화성시 M.I.H 예술단은 관현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화성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Hwasong Young Arts

모두를 위한 무대  
가까이서 즐기는 예술  
관객 누구나 쉽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 윤지아 연주자는 첫 활동인데 지원 계기는?



화성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느꼈던 국악의 매력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에 비례해서 많은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죠. 화성시청년 예술단을 알게 되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경험도 쌓고 다른 장르와도 교류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학업을 마치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장에 있는 예술인으로서 감회는?



거리와 공연장 등 다양한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칠 예술가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무척 기대됩니다. 역시 예술인들은 무대에 있을 때가 가장 빛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관객분들의 표정을 직접 보며 추임새 등을 통해 함께 호흡하며 무대를 만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

## 작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리허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출근하고,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해요.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하기에 공연을 올리지 못해도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올해는 체계적인 조직화로 각 파트마다 소통이 원활해요. 연주 레퍼토리를 늘리고 관현악과 국악, 보컬 파트와 자주 교류하면서 많은 협연 무대를 만드는 게 바람이죠. 특히 올해는 청년 예술가가 많이 합류하면서 육성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짜임새 있게 구성된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 덕에 예술단도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죠. 특히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자부합니다. 단합력을 기반으로 만들어 갈 무대가 벌써 기대되네요.




기쁘고 행복해요. 마스크 없이 연주할 수 있게 돼 연주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 올해 공연 계획은?




오는 6월에 송방천에서 시네마 콘서트가 계획돼 있고, 9월 9일에는 화성아트홀에서 통합공연이 열립니다. 이외에도 시민 맞춤형 공연과 버스킹 형태의 권역별 콘서트, 동탄복합문화센터 로비에서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에요.

**청년예술인에게 화성시문화재단의  
청년예술단 사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술단원, 코디네이터의 경우 자격 요건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사실상 정말 힘들거든요. 화성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많은 청년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유망한 예술인을 육성하는 양질의 사업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동등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4대 보험을 적용받기 힘든 예술인에게 화성시 청년예술단은 다른 시립 오케스트라단과 같은 대우를 해주거든요. 정당한 임금과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등 환경적 제약이 많아 예술인들이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열심히 활동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술단 활동을 통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전통의 본질을 지키며 다양한 장르와 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올해 어떤 무대를 선보이고 싶은지**

 육성과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관객들은 실력이 없으면 안 들습니다. 먼저 연주자들의 실력 향상이 선행돼야 하죠. 멋있게 기획한 공연을 화성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화성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지난해 무료로 선보인 마티네 콘서트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총 4차례 진행한 공연이었죠. 무대가 끝난 후 관객이 다가와 위로받고 간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그 말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문화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 청년예술단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자주 보고 싶고 생각나는 공연으로 기억되길 바라요. 여운이 남는 공연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관객분들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성장하는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공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청년예술단이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해요. 존재를 알면 호기심이 생기고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단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에 앞장서서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NEXT**

- 언제?** 5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 어디서?**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 무엇을?** HVA플리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Playlist> 청년예술단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공연



**이건상**  
육성과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아**  
관객분들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성장하는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공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은서**  
화성 시민을 위한 청년예술단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해요. 존재를 알면 호기심이 생기고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소통에 앞장서서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해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가는 늘 있었지만, 유행 주기가 빠르고 짧아지면서 기억에 남는 노래를 꼽으려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음악차트를 휩쓸며 k-pop 산업의 대세로 떠올랐다. 이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의 사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진스의 열풍을 대중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글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인기 장르의 공존, 빠른 유행 좇기에 급급**

유행은 순식간에 바뀐다. 세상 어디에도 절대 강자는 없다.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지배한 가왕 조용필, 1990년대의 정복자 서태지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 이미 오래다. 케이팝의 전성기를 구축하고 이어온 빅뱅, 소녀시대,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도 마찬가지다. 이제 아티스트의 경쟁자는 같은 장르의 아티스트가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장르영역의 콘텐츠가 이용자의 시간과 돈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수한 공연, 게임, 글, 드라마, 방송, 사진, 스포츠, 영화, 웹툰, 전시, 책 등이 모바일 기기와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쏟아지는 시대의 실상이다.

그러다 보니 유행을 쫓아가기 급급하다. 생업과 생활을 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TV와 OTT 서비스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아예 포기한다. 드라마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거나, 유튜브에 올라온 축약본으로 보기도 한다. 볼 건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한 시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빚어낸 수용패턴의 변화다. 오늘날 대중문화 수용자는 계급, 세대, 젠더, 취향 등에 따라 칸막이를 쳐놓은 사무실처럼 분리되어 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상대는 모르고, 상대가 열광하는 무언가를 나는 이름밖에 모른다. 물론 예전에도 대중문화 수용자들은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는 세대와 관심에 따라 갈라진 장벽이 너무 높아 좀처럼 만나기 어렵

TALK 문화 X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 온 세상이 뉴진스(New Jeans)



뉴진스 1집 커버 'New Jeans' Weverse Albums ver.

다. 하지만 다른 관심과 취향을 만나지 못해도 그다지 아쉽지 않다. 좋아하는 대상만 즐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국민가수가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계속 나와도, 그 드라마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서 나누며 흥분하는 시청자는 지금 TV 시청률이 높은 일일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가 무엇인지 모른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현대인은 끼리끼리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 모여 즐거움을 공유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행을 파악하거나, 유행을 통해 시대를 인식하기 어렵다. 동시에 여러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진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공통의 관심이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 공론장이 사라진 시대에는 각자의 취향을 극대화할 뿐이다. 개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함께 빚어낸 현상이다. 그래서 현재 대중음악 시장에는 트로트와 케이팝의 인기뿐만 아니라 힙합과 재즈의 인기가 공존하지만, 서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데 딱히 흠이 되지 않는다.

**대중음악 판도를 흔든 신인 걸그룹의 등장**

그럼에도 2023년의 한국 대중음악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을 다 짚어야 한다. 물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는 음악은 여전히 케이팝이다. 하지만 케이팝만 이야기해서는 대중음악의 주요한 흐름을 총

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알고 있어야 할 영역은 더욱 늘어났다. 대중음악 평론가조차 이 흐름을 다 아우르지 못한다. 한두 장르만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그 외에는 입을 닫는 이유다.

2022년 7월 22일 데뷔한 걸그룹 뉴진스의 인기가 놀라운 이유는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뉴진스의 데뷔 음반은 발매 3일 만에 선주문 44만 장을 돌파했고, 누적 판매량은 100만 장을 넘겼다. 그 후 2023년 1월 2일 발표한 뉴진스의 노래 'Ditto'는 2023년 3월 27일 월요일까지 멜론 주간 차트에서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뿐 아니다. 2022년 8월 1일 발표한 데뷔 EP [New Jeans] 수록곡 'Hype boy'는 여전히 차트 2~3위를 지키고 있으며, 'Ditto'와 함께 발표한 'OMG' 역시 차트 10위권 안에 머무는 중이다. 'OMG'는 빌보드 싱글차트인 Hot100차트에서 6주간, 'Ditto'는 5주간 버텼다. 'Hype boy'는 빌보드 글로벌200차트에서 32주 연속 랭크 되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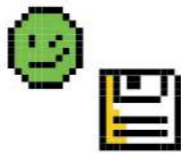
지금 대중음악계의 경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결과다. 최근 케이팝 신(scene)에서 르세라핌, 스테이씨, 아이브, 에스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인 걸그룹의 경쟁이 불붙었음을 아는 이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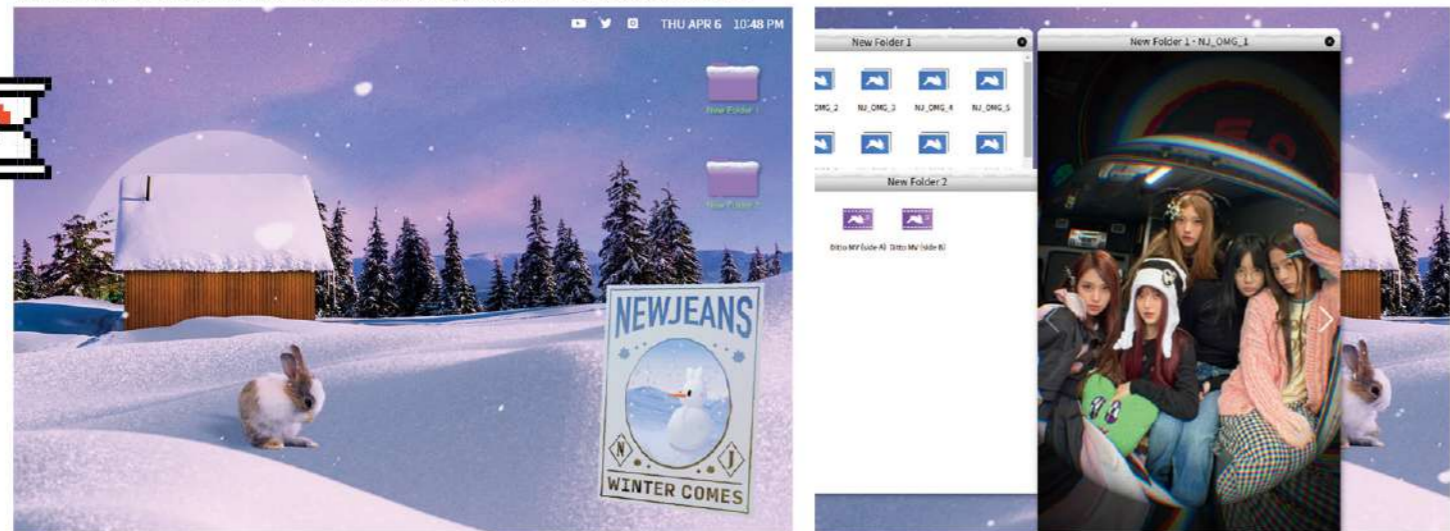
attention - Hype boy - Ditto - OMG

뉴진스를 누가 기획했고, 어느 회사에서 제작했는지 아는 이들은 멋진 팀이 나와 잘될 거라 예상했어도 이 정도로 인기를 끌 줄 몰랐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BTS의 인기가 굳건하지만, 국내에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케이팝의 높은 인기와 완성도는 작은 내수시장에만 기대지 않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국내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다양한 캐릭터, 장르, 스타일을 가진 케이팝 뮤지션이 얹치락뒤치락 공존해왔다.

하지만 뉴진스는 얼마든지 판도가 바뀔 수 있음을 선언했다. 'Ditto'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차트를 장악하기 전, 데뷔 3개월 무렵인 지난해 10월에 뉴진스는 이미 100여 개 기업의 광고 러브콜을 받았다. 현재 뉴진스는 나이키, 맥도널드, 애플과 협업하고 있을 뿐 아니라, LG와 함께 노트북 그래픽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다. 리바이스, 버버리, 샤넬, 아르마니 뷰티, 입생로랑 뷰티를 비롯해 광고와 협업에 참여한 경우는 훨씬 많다. 인기만 높은 것이 아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 최우수 케이팝 음반, 노래 부문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음악성까지 인정 받았다.



뉴진스는 상투적인 음악과 고착화된 케이팝 문법을 탈피했다. ©뉴진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순위	곡정보
1	Ditto NewJeans - NewJeans 'OMG'
2	Hype boy NewJeans - NewJeans 1st EP 'New Je...
3	OMG NewJeans - NewJeans 'OMG'

음악플랫폼 멜론, 지니 기준 모든 장르를 종합한  
일간차트(2023년 3월) 1, 2, 3위에 뉴진스의 곡이 랭크돼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제목처럼 '온 세상이 뉴진스'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기존 케이팝 제작 방식을 똑같이 반복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뉴진스는 다른 케이팝 뮤지션들처럼 전문 기획사에서 선발하고 훈련시켰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 민희진이 SM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 네트워크, 문제의식, 안목, 철학을 빼고는 설명하지 못한다.

케이팝 문법 탈피한 쉽고, 가볍고, 부담 없는 음악

민희진을 위시한 어도어의 제작자들은 다른 서사, 스타일, 음악을 준비했다. 뉴진스는 기존 케이팝 뮤지션들처럼 강렬하고 선명한 혹은 앞세운 곡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의 음악은 훨씬 쉽고 가벼우며 부담 없게 들린다. 오랫동안 굳어진 케이팝 문법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러한 결과물을 위해 민희진은 음악 레이블 비스초엔네 이티브스(Beasts And Natives Alike, BANA)와 협업했고, 강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멜로디를 뽑아냈다.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친근함을 배가시키면서도 상투적이지 않은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 데 공을 들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소속사, 스타일, 안무, 외모, 제작자, 캐릭터의 힘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힘은 음악에서 나온다. 어떤 뮤지션도 음악으로 보여주고 설득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데뷔 음반의 수록곡 네 곡 가운데 'Attention',



'Hype boy', 'Cookie'를 모두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는 방식 또한 과감했다.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싱글 중심의 소비 패턴에 영합하지 않은 차별성이다.

기존 걸그룹에 비해 낮은 연령대도 화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뉴진스가 내놓은 뮤직비디오, MD, 음반 등 모든 결과물의 비주얼에서 복고적인 감각을 세련되게 표현하면서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세대의 감각과 욕망을 포섭했다는 점도 인기에 크게 기여했음을 모두가 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분석은 뉴진스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후적 해석이다. 만약 뉴진스가 인기를 끌지 못했다면 어떤 평가도 성립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뉴진스의 인기만큼 중요한 것은 뉴진스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어떤 곡과 스타일을 갈망하는지, 어느 지역의 무슨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반응하는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제작 방식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뉴진스만큼 독보적인 사례는 2023년 현재 전무하다. 유행은 대중의 욕망과 무의식까지 드러낸다. 뉴진스가 바꾼 흐름, 뉴진스에게 들키고 길들여진 욕망과 무의식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건가.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사랑한다. 음악의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 특히 관심이 많다.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스스로 놀라는 글을 쓰고 싶어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 블로그에 가면 어떤 음악을 들으며 사는지 엿볼 수 있다. 쓴 책으로는 <<그렇다고 땀을 수 없다>>, <<음악이야>>,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 <<음악편애-음악을 편들다>>, <<밥 딜런, 똑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아>>가 있고,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 <<인간 신해철과 넥스트시티>> 등을 함께 썼다.



LIVE

변이와 본체를 반복하기의 의미의 기록  
아티스트 최유희 CHOI Yu Hee



무질서하게 사방으로 뻗은 들풀, 고개를 한껏 쳐들어야 두 눈으로 담을 수 있는 타워크레인.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자연과 인위의 경계에 선 최유희는 찰나의 순간을 관조한다. 예민한 기질로 잡아챈 생경한 풍경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 창작자를 생동하게 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무수한 이미지들은 캔버스에 안착해 작품으로 태어났다. 눈을 뜬 채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

글 배미진 사진 김건우



드러냄과 숨김의 균형  
사유를 이끄는 작품 세계

두 눈은 맑게 반짝였고 미소는 티끌 없이 화사했다. 재고 따짐 없이 모든 것을 예워 감싸는 들풀처럼 최유희는 수수하게 다가왔다. 손톱에는 미처 씻어내지 못한 초록색 물감이 제 자리인 마냥 머물고 있었다. 그는 불안이 내면을 짓누를 땐 그림으로 버텼다. 그게 시작이었다. 붓을 들면 다른 세상에서 있었고 행복했다. 자유를 갈구하며 화면(畫面)에 들어가 커켜이 쌓은 세계와 때때로 변하는 감정을 담으며 몰입했다.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작가의 길을 걷겠노라 마음먹었다.

“왜 미술을 선택했는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주체로서 화면 안에

들어와 그리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 치유였죠.”

한동안 작업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육아와 생업에 바쁜 나날이었다. 하지만 온전한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붓을 들었다.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쁠 때 되려 진득하게 그림을 그렸다. 그는 욕망과 본성을 숨김과 드러냄으로 양가성을 조명한다. 혀와 입술, 가슴 등 인간의 욕망이 스며있는 형체는 끝없이 증식하며 저마다 무수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상상은 수용자의 몫이다.

“보이는 대로 이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때 어디까지 숨기고 드러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죠. 그림은 개인의 경험치 만큼 그림이 얹히고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게

느꼈거든요. 스무 살에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봤을 땐 이 작품이 왜 유명할까 생각했어요. 10여 년 후에 다시 보니 저도 모르게 깊이 공감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작품은 표면이 매끈하다. 프린터로 인쇄한 것인지 의문까지 들었다. 그는 다소 무거운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하게 다채로운 색감으로 나타내려 한 것이다.

“관람객이 긴가민가한 느낌을 받았으면 했어요. 확실히 드러내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아요. 숨바꼭질하듯 얇은 커튼이 쳐져 있는 느낌이지요. 물음표처럼요. 내가 보는 게 허인지, 꽃잎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인물의 표정도 감추죠. 드러내면 한정적으로 생각이 읽히거든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일상을 따라 걷다**

서울 태생인 최유희는 그의 말마따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 2019년 화성에 터를 잡았다. 거주 목적으로 왔지만 예술가의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기회의 땅이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문을 두드렸고 심사를 통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2년 이어 올해도 화성예술활동지원 공모에 선정된 그는 요즘 신도시가 개발되는 풍경을 관조한다.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심, 신이 된 것처럼 구는 인간들.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허허벌판에 타워 크레인이 박혀 신처럼 아래를 내려다보고 철옹성처럼 펜스가 서 있어요. 모든 요소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죠. 자연 풍경까지도요. 그 느낌이 생경하고 이질적으로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잖아요. 차가운 철제에도 어느 순간 들풀이 휘감겨 있죠. 그런 점이 매력적 다가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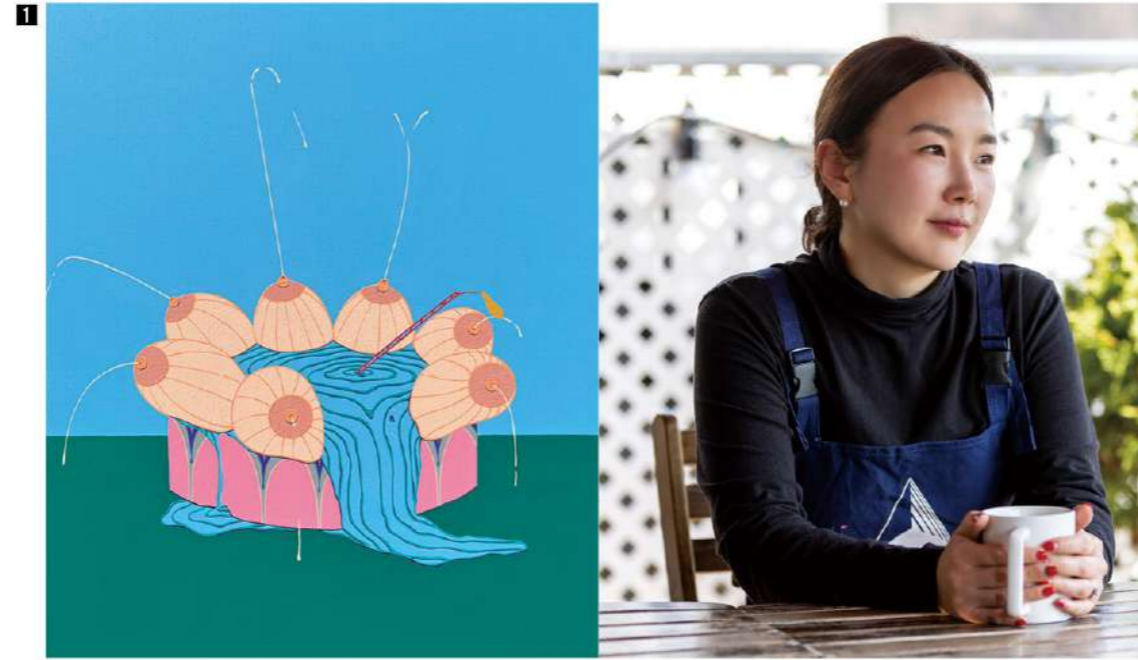
오는 10월 18~24일 화성 공평아트뮤지엄 아카이브에서 선보일 개인전 주제는 'EVERY DAY EVERY MOMENT(모든 날 모든 순간)'이다. 일기처럼 작가의 삶과 일상을 담아낼 것이다. 제일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다. 누군가 그림을 보고 다른 시선으로 생각하거나, 위안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최근에는 100~120호 크기의 대형 작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작업한 10호 작품들은 하나의 개체에 스토리를 만들어 그리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개체들을 화면 속에서 뒤엎겨 놓을 생각이다. 그야말로 욕망 덩어리의 집합체다.

**화성, 내게 영감을 준 도시**

작업실은 화성시 영천동에 있다. 한 공간을 둘로 쪼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맞은 편에는 이젤을 세워 그림을 그린다. 갤러리 아트셀시 전속 작가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는 화성을 기회의 땅으로 여겼다. 문화재단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했으며 화성예술활동 지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지원 사업 자체가 예술가에게는 축복이죠. 그림 그리고 전시를 준비하며 재료비, 갤러리 대관료, 도록비, 촬영비, 운송비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재단의 지원과 관심은 작가로서 정지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화성시는 영감을 준 도시이기도 하고요.”

최유희는 우리가 지나치는 것들의 소중함을 그린다. 들풀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늘 그랬듯 계산하지 않고 지금의 감정에 충실할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가까이 눈물 흘리고 기쁨에 활짝 미소 지을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이기려 하지 않고 현재를 느끼며 묵묵히 걸어 나갈 것이다.



확실히 드러내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아요.

내가 보는 게 허인지,  
꽃잎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최유희** CHOI Yu Hee

**개인전**

- 2021 <Tongue view>,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 2020 <What's important?>,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 2019 <Black Rain>, 갤러리아트셀시, 서울
- 2017 <A glorious day>, 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1 Human by Hideholic(우덕기획초대전), 갤러리우덕, 서울
- 2010 Hideholic(관훈기획초대전), 관훈갤러리, 서울
- 2008 Hideholic,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 2022 <From Seoul To Merida: 서울에서 메리다까지>, 메리다 비주얼 아트센터, 멕시코
- 2022 <MY FIRST COLLECTION>, 신세계 Art&Science, 대전
- 2021 <UN SUPER NATURALISM 3인전>, 유나이트드갤러리, 서울



- 1 Every day Every moment**  
나를 키운 건 팔 할이...이다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22
- 2 Sneer**  
162.2x97cm  
acrylic on canvas  
2021
- 3 Every day Every moment**  
New city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22



**36 WALK**

시간의 길목마다 달리 보이는 풍경들

**38 TREND**

아름다운 서해에서 즐기는  
하늘길 낭만 데이트

**42 TICKET**

찬란한 노을 선선한 바람  
음악이 함께 머무는 곳  
Music Stay 2023

**46 DRAW**

한계를 벗어나라 배움에 끝은 없다  
화성시민대학

**48 TRAVEL**

반짝이는 '진주의 예인(藝人)  
내밀한 삶의 궤적을 기록하다

**Go to**

**The 가다 × 그곳을 가다**

WALK

# 시간의 길목마다 달리 보이는 풍경들

코 날마다 우리에게 도착하는  
하 말들을 수집한다.  
연 아이의 반짝이는 말을 모아  
《아이의 말 선물》이라는  
책을 쓰고 다양한  
여성들의 성장을 담은  
《#낫워김》을 함께 썼다.  
에세이를 쓰며 순간을  
간직하고, 동시를 지으며  
늘 쓰던 언어를 다시  
만난다.

알록달록한 빛깔로 물든 계절,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껏 가벼워졌다. 거리는 만물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우리는  
흘러가는 풍경을 부지런히 주워 담기 바쁘다. 생동하는  
화성의 다채로운 모습을 시민의 시각으로 펼쳐본다.

글 고하연(2023 《화분》 시민 에디터)

5월에는 코스모스를 닮은 얼굴에, 색은 해바라기를 닮은 금계국이 피었다. 동탄 2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에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반대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산책길이 있었다. 늘 위에 있는 길만 다녔기에 숨어있는 산책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5월의 저녁,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늘 다니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가 보자고 생각했다. 길을 건너기만 했을 뿐인데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도로 아래에는 긴 노랑 리본이 양쪽에 풀어져 있는 듯 꽃들이 늘어서 있었다. 초록의 얇은 줄기 끝에 진노랑색 꽃이 피어 있고 잎 가운데에는 초코볼이 콕 박혀 있었다.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이 스탠드 마이크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예쁜 장면을 혼자 본 게 아까워 아이와 함께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줄곧 날이 흐려서 언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이대로 꽃이 질 것 같아 우산을 챙겨 나갔다. 올해 금계국을 못 보면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세 시간, 네 시간 운전해서 가야 만나는 광양 매화마을이 아니라, 5분이면 꽃들을 만날 수 있다니... 가까이 행복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금계국 꽃축제에 입장했다. 날이 흐려서인지 그곳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꽃들이 바람에 움직였다. 발레리나 같았다. 한 송이의 꽃도 아름다운데 몇천 송이가 군집을 이루니 군무 같았다. 그 길은 지난겨울 험하고, 하천의 냄새까지 더해져 스산했던 곳

이었다. 계절이 바뀌자 순식간에 노란 벽지를 바른 듯 환한 공간이 되다니, 자연의 변화에 감탄했다. 혼자 감상에 젖어 있는데 “으악” 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9살 아이는 벌이 무섭다며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놀이공원 속 귀신의 집에 들어온 듯어서 이 길에서 나가자고 했다. “린아, 벌을 보지 말고 꽃을 봐.” “으악 벌이 물까 봐 무서워. 벌밖에 안 보여.” 아이에게 벌은 뱀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가져간 우산이 검이라도 되는 듯 벌이 다가오지 못하게 휘저었다. 아이는 벌을 보느라 엄마의 감탄과 꽃들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장면을 즐기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속상했다. 산책로를 걸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벌 이야기만 하는 아이를 벌주기도 싶었다. 길 끝에 다다르자 아이가 활기찬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끝났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그래, 아이는 자기가 꽃이겠다.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어. 인생 중반에 들어서야 보이는 것들을 청춘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에게 보라고 강요했구나.” 시간의 길목마다 보이는 풍경은 다르다. 나는 꽃을 보고, 아이는 벌을 본다. 꽃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의 시간이 흐른다. 꽃을 못 본다고 아쉬워했지만, 아이는 벌을 세밀하게 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꽃은 한 가지만 파는 가게인가 봐. 벌이 마트에서 꿀만 사가.”



“ 나는 꽃을 보고, 아이는 벌을 본다. 꽃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의 시간이 흐른다.”

## 꽃 마트 고하연

똑똑 대신  
윙윙-

안녕하세요 대신  
윙윙-

활짝 연  
꽃 문으로 들어오는 벌 손님

벚꽃 마트 속  
진열된 꿀 한 방울

다른 벌이 오기 전  
얼른 산다

봉지에 넣어드려요  
아니요

몸속에 꿀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돼요

주머니에 꿀 다 채우려면  
2-300개 꽃가게 들러야 하니

황급히  
열 꽃가게로 떠난다

저기 손님, 계산은요  
윙-윙-

오늘도  
외상이다



# 濟州島

TREND

아름다운 서해에서 즐기는

## 하늘길 낭만 데이트

시원한 바다 풍경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 이국적 풍경의 건국항부터 하루에 두 번만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한 섬 제부도까지 화성의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넓게 펼쳐진 바다를 하늘에서 조망할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말이다.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사진 서해랑

# 嶺海浪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두 개의 정류장**

하루에 두 번 열리는 바닷길, 제부도는 시간마다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이 때문에 제부도에 방문하려면 물 때 시간표를 확인하는 일은 필수였다. 하지만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이 2021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물길이 열리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제부도에 방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바다나 갯벌이 펼쳐진 모습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은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로 탑승하면 바다 위에서 제부도 명물인 제부모세길, 누에섬, 해상풍력, 전곡항의 마리나 요트까지 감상할 수 있다. 총 2.12km로 국내 해상케이블카 중 가장 길다. 케이블카에 탑승하기 위해 찾게 되는 첫 번째 장소로는 전곡정류장과 제부정류장, 두 개의 탑승 승강장이 있다.

**제부정류장  
섬을 선사하는 전시공간 마련**

제부도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있는 제부정류장은 총 4층으로 조성돼 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F&B 매장들과 3층 '제부 아트 갤러리'에서 수준 높은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제부 아트 갤러리에서는 4월 25일(화)까지 화성시 작가인 김도훈, 김재범, 백열 작가의 <청년 추상 3인전>이, 이후 5월 1일(월)부터 29일(화)까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입주 창작자 '꿈꾸는 물빛 수채화'와 '다정한 직물'의 전시 <봄: 또 다른 시작>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곳의 옥상에도 '제부하랑'이라는 멋진 루프탑이 있어 제부도 모세길 등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련해놓은 빈 백, 계단 등의 자리에서 여유롭게 쉬어갈 수도 있다. 또한 곳곳에 마련된 조형물, 포토존 등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전곡정류장  
한눈에 즐기는 아름다운 자연**

<화성 뱃놀이축제>가 열리는 전곡항 근처 전곡 마리나 클럽하우스 옆에 위치한 전곡정류장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카페, 편의점 등 매장과 옥상 테라스 '호연담'이 갖춰져 있어 높은 위치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특히 서해 낙조와 일몰 이후 아름다운 야간 경관이 일품이다. 정류장 외부에는 30분 이내의 가벼운 도보 코스인 고령산 수변공원이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1\_ 제부정류장
- 2\_ 전곡정류장
- 3\_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 4\_ 제비꼬리길
- 5\_ 매바위
- 6\_ 제부해안길



**제부도 하루 여행 매력적인 코스**

평일에는 서해랑 케이블카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해랑 순환버스가 있다. 제부도 내 주요 명소들을 시간표에 따라 운행한다. 제부정류장 앞의 제부승강장에서 선착장, 해안산책로, 놀이동산, 매바위 공영주차장 앞, 갯벌민박 앞, 캠핑장 입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부승강장으로 돌아온다. 제부도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스팟들을 소개한다.

**매바위**

제부도 최남단에 위치한 세 개의 바위섬으로 '매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매바위라 불린다. 밀물과 썰물 때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밀물 때는 바다 한가운데의 섬이 되며 썰물 때는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길이 열려 걸어서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제부도 해변**

제부도 서쪽 해안의 백사장으로 오른쪽에는 기암절벽이 있고, 왼쪽에는 매바위가 있어 멋진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간조 때는 바다생물을 관찰하고 조개도 채취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바다체험장으로 제격이다.

**제비꼬리길**

제부도에서 가장 높은 탐재산을 따라 걷는 제비꼬리길은 걸을수록 매력적인 데크 길이다. 길은 제부도 등대까지 이어지며 탐재산 등산로와도 연결된다. 길을 걸으며 독특한 의자나 귀여운 조형물들을 만날 수 있어 특별하다.

**제부도 빨간 등대**

제부도를 입출항하는 선박 및 요트의 뱃길을 안내해주는 빨간 등대. 푸른 바다와 대조된 빨간 등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 서해랑

嶼海浪

---

**위치**  
전곡승강장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10  
제부승강장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18

---

**운영시간**  
[3~4월] 주중 10:00~20:00  
          주말 09:00~20:00  
[5~10월] 주중 10:00~20:00  
          주말 09:00~21:00  
[11~2월] 주중 10:00~19:00  
          주말 09:00~20:00  
탑승권 발권은 운영 마감 1시간 전까지,  
탑승은 폐장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시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홈페이지 참조

---

**이용요금**  
일반 캐빈 왕복  
대인 1만 9,000원, 소인 1만 5,000원  
크리스탈 캐빈 왕복  
대인 2만 4,000원, 소인 1만 9,000원  
기타 가격 및 할인가는 홈페이지 참조

---

**TIP**  
전곡정류장은 가파른 언덕길에 있다.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은 제부정류장  
이용을 권장한다.

문의 : 1833-4997

TICKET

# 찬란한 노을 선선한 바람

# 음악이 함께 머무는 곳

어느새 우리의 일상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무난하고 평범한 일상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설렘을  
원하고 있다. 5월부터 기분 좋은 두근거림을 선사할 뮤지션들이  
반석산 야외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글 황용진(공연예술팀)

# Music Stay 2023

\* 공연 일정 및 운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반석산 피크닉 : 김현철 & ADOY

한국 1세대 시티팝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김현철과  
몽환적인 음악색이 돋보이는 밴드 ADOY의 시티팝 공연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반석산 야외공연장에서  
신나는 무대와 함께 피크닉도 즐길 수 있다.  
노을빛이 지는 공연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좋은 음악을 즐기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김현철



ADOY



### 반석산 피크닉 : 김현철 & ADOY

일시 2023. 5. 13.(토) 18:00  
장소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가격 객석 3만 원 / 잔디석 2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비오 © 빅플래닛에이즈엔터



김뜻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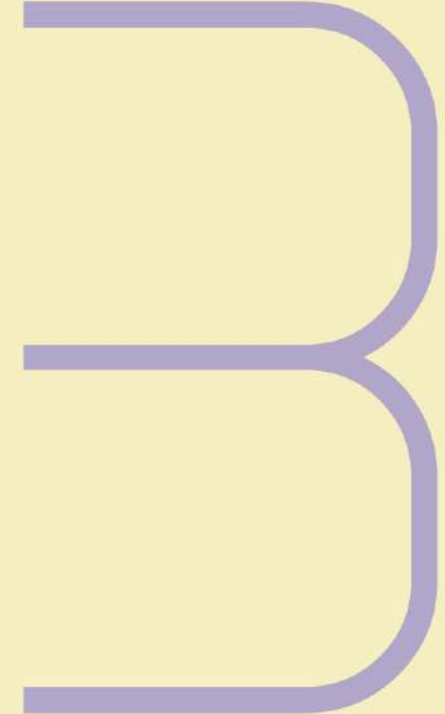
너드커넥션



럼블피쉬



나상현씨밴드



## 비오×오반 Run the Beat

이어지는 6월 공연은 R&B와 힙합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멜로딕 힙합 장르의 콘서트 <Run the Beat>이다. 노래 'Counting Star'에 이어 '리무진'으로 음원 차트를 석권한 래퍼 비오, 사랑에 대한 독특한 감성과 개성을 멜로디에 담은 오반이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은 재즈힙합, 테크하우스 장르를 메인으로 하는 DJ 샬의 디제잉이 함께 한다.



오반



### 비오×오반 <Run the Beat>

**일시** 2023. 6. 10.(토) 19:00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가격** 객석 3만 원 / 잔디석 2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무손실합주 : Night & Day

**Night** 김뜻돌 & 너드커넥션  
**Day** 나상현씨밴드 & 럼블피쉬  
**일시** [Night] 2023. 6. 16.(금) 19:30  
 [Day] 2023. 6. 17.(토) 17:00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무손실합주 : Night & Day

다채로운 색을 가진 인디밴드 4팀과 싱어송라이터의 콘서트 <무손실합주 : Night & Day>도 예정돼 있다. 금요일 저녁에 개최되는 <무손실합주 : Night>는 1990~2000년대 초반 영국의 밴드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얼터너티브 록밴드 너드커넥션과 밴드 사운드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앨범마다 다양한 음악색을 보여주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이 각자 개성을 담아낸다. 야외공연장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음악이 주는 여유로움도 느껴보자. 이어 토요일 낮에 개최되는 <무손실합주 : Day>는 친숙하지만 뻔하지 않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노래하는 인디 록 장르의 '나상현씨밴드'와 데뷔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2000년대 밴드 붐을 일으켰던 '럼블피쉬'의 무대다. 포근한 햇살과 함께 즐기는 발랄한 멜로디로 휴일의 즐거움을 더해보자. 반석산 야외공연장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펼쳐지는 무대는 관람객에게 저마다의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내손으로 완성하는  
화성시민대학  
《화분》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면 화성시민대학  
스케치가 있습니다

### 시민 생활문화 활동 지원·육성

화성시민대학은 지난 2015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전주로 이전한 옛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에 맞춰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했던 시민대학을 실체를 갖춘 평생학습 교육 기관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민대학은 화성시민캠퍼스 내 한국농수산대학 본관 우측 동을 리모델링했다. 지상 4층 규모로 3개의 미디어실과 강의실, 동아리실, 전시실, IT실, 요리실 등을 갖췄다.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창작소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꿈드림도 캠퍼스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생활문화창작소는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경기 남부의 문화 거점으로 거듭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이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일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2024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생활문화창작소

북카페 © 화성시 포토갤러리

### 언제든 배움의 갈증 충족하는 열린 공간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발전 추구를 위해 태고에서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행하여지는 교육을 총칭한다. 화성시민대학에서는 화성학을 비롯해 시민학, 인문학 등 연중 상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인문학, 웰빙학, 생활학, 화성학, 미래학, 장기과정 총 28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reserve.hscity.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시와 교육, 체험, 공연, 대관까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민대학에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겨보자.



음악동아리실

화성시민대학 김누리 교수 강의 모습

## DRAW

한계를 벗어나라  
배움에 끝은 없다  
화성시민대학

2022년 4월에 문을 연 화성시민대학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남녀노소 평등한 평생학습 여건이 조성된 덕에 배움을 찾으려 나온 만학도, 지식을 얻고 싶은 화성시민의 발길로 분주한 곳이다. 배움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화성시민대학을 어반스케치로 펼쳐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김예슬 자료 화성시민대학



### 화성시민대학 안내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동화리 11-1)  
운영 평일 : 09:00 ~ 22:00  
주말 : 09:00 ~ 18:00  
공휴일 휴무  
문의 평생교육과 031-5189-6109



\* 지역에서 문화예술 양성, 균형 있는 문화 복지 제공에 발 벗고 나서는 이들을 조명한다. 수도권에서 벗어나 《화분》이 주목하는 지역의 의미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TRAVEL'에서 확인해보자.

TRA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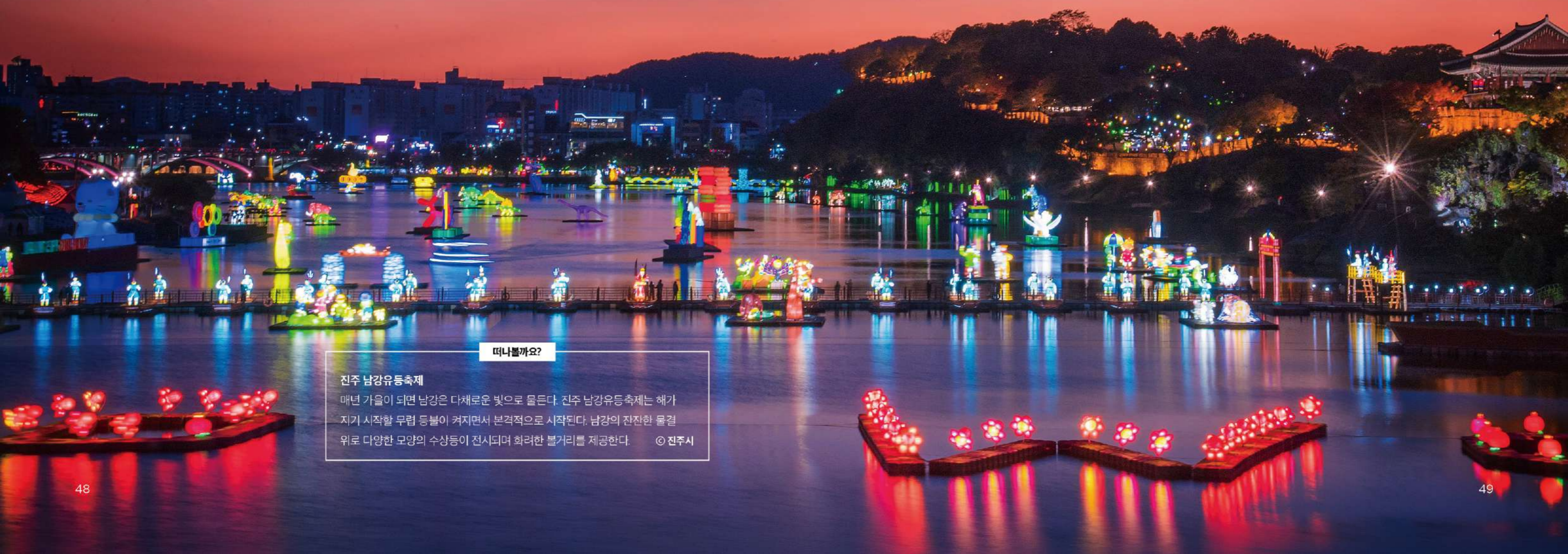
藝人

# 반짝이는 '진주'의 예인 내밀한 삶의 궤적을 기록하다

진주의 향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장에 뿌리내린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풍류와 멋을 아는 이들의 삶이 곧 문화의 흔적이며 역사의 기록이었다. 이들의 발자취를 좇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진주시는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글 편집실 자료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 진주



떠나볼까요?

진주 남강유등축제

매년 가을이 되면 남강은 다채로운 빛으로 물든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등불이 켜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강의 잔잔한 물결 위로 다양한 모양의 수상등이 전시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진주시

###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애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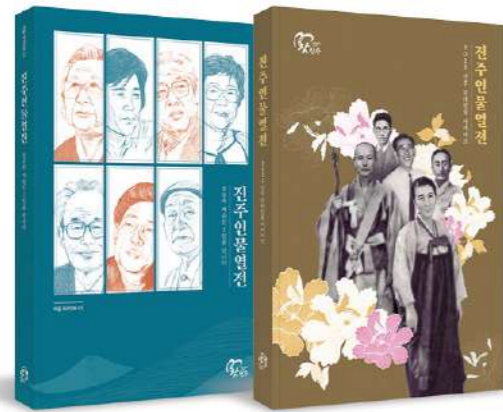
진주시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은 진주에서 태어났거나, 진주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한 문화예술인의 생애사를 조명하고 그들의 자료와 과거의 기억을 모으는 작업이다. 2021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이다.

기록화된 진주 인물은 문학인 설창수<sup>1916-1998</sup>,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현대의 고승 청담<sup>1902-1971</sup>을 필두로 작곡가 이봉조<sup>1931-1987</sup>와 정민섭<sup>1940-1987</sup>,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낙화유수'를 작사·작곡한 김서정<sup>1898-1936</sup>, 교방 문화를 지켜온 성계옥<sup>1927-2009</sup>, 근대 문인화의 전통을 세운 황영두<sup>1881-1957</sup>, 시인 최계락<sup>1930-1970</sup> 등 12명이다. 이들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가 필요했다. 관련 신문 기사와 논문, 도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샅샅이 파헤쳤고 작고한 예인들의 가족과 지인을 직접 만나서 생전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자료가 부족해 무(無)에서 시작한 인물도 여럿이었다. 그럴 땐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하며 조사 범위를 넓혔고, 질문을 거듭하고 조사의 의미를 확장하며 조각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갔다. 가족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던 예인의 작품까지 수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시장도 툼툼이 확인하며 유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기록된 성과는 아카이브 도서 《진주인물열전》과 오프라인 전시에 오롯이 담겼다. 잊힐 뻔한 지역의 문화인물들을 시민들에게 또렷이 각인시키는 시간이었다.

###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 구축

이번 사업을 진행한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김해솔 학예사는 지역의 문화 자산을 구축하는 것은 지방 중소도시라면 불가피한 선택이자 활로라고 설명한다. "전 세계 모든 도시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좁아지는 세상에 서울에서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지방에서 따라가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와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문화자산이 풀리기 마련이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한 진주 문화·예술인물 아카이브를 통해 발굴, 기록된 12인의 인물을 정리한 내용은 《진주인물열전》이라는 이름의 두권의 책으로 정리되었으며, 서지등록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있다.



2021년 진주인물열전 전시

각 인물별 아카이빙으로 수집된 자료와 유물은 진주시청에서 2주간 전시했다. 모든 기록 자료는 진주시의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진주인물열전 전시



### 진주시 문화·예술인물 아카이빙 현황

- 2021년  
문학 설창수, 이형기  
음악 이봉조, 정민섭, 이상근  
미술 박생광, 이성자
- 2022년  
종교 청담스님  
음악·영화 김서정  
무용 성계옥  
문학 최계락  
미술 황영두

그렇기에 '진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진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풍경,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처럼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학예사는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산은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것이고, 후대에 전달될수록 문화적으로 대도시에 종속되지 않는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독립적인 문화가 주는 힘은 지역의 개성이 되고 매력이 되어 타지 사람들의 눈과 발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는다.

### 다양한 분야의 예인 기록화

진주시는 올해도 문화인물 기록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2년간 다루지 못했던 분야의 인물들을 조명한다는 것이다. 진주여고 설립에 기여한 허준, 삼현여중고를 설립한 최재호와 같이 진주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기록한다. 또 판소리 명창 이선유, 서예가 정현복, 공예가 정돈산처럼 전통예술 분야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다. 오직 진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자산의 토대를 쌓는 여정이 시작됐다.

### INTERVIEW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김해솔 학예사

### 지역 고유의 문화,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해야

Q. — 향후 지역 문화예술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위해 노력하되, 세상과 교류하는 조화로우미 중요한 것 같아요. 고유한 문화라는 가치는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고립된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것,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만의 개성이 내부 결속만 강화하고 폐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것을 꾸준히 세상에 보여주고, 다른 지역의 매력적인 콘텐츠도 진주에 소개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곳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소도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올해 문화인물 기록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A. 지난 2년간 기록한 예인들은 화가와 대중음악가의 비중이 컸습니다. 올해는 교육과 관련한 인물과 전통예술(판소리, 서예, 소목)에 집중돼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이 예상됩니다. 그중 허준이나 이선유의 경우 활동 시기가 100년 전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늦기 전에 기록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되지 못한 민간 기록물들과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 진주만의 문화자산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 HELLO**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축제  
2022 '축제기획학교' 시민기획자  
이원재·신지영·김민숙

**58 ARCHIVE**

이국적인 마리아 팔딱이는 생기를 머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62 PEOPLE**

화성인의 대답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분류하나요?"

**66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72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73 PLACE**

배포처

Doing

The 하다 × 동행하다

HELLO



2022  
'축제기획학교'  
시민기획자

이원재  
신지영  
김민숙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축제기획학교' 사업을 통해 마중물을 붓고 있다. 이론·실무교육으로 이뤄진 현장 중심형 기획학교를 운영하며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시민기획자들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축제를 기획해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글 배미진 사진 김건우 화성시문화재단



공기 중에 떠돌던 봄이 드디어 땅에 내려앉았다. 시민기획자 김민숙, 신지영, 이원재 씨는 싱그러운 미소로 봄을 반기듯 서로를 반겼다. 인연이 된 지는 1년이 채 안 됐지만, 10년 지기처럼 돈독한 우정을 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축제기획학교'를 수료하는 동안 친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화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만 모인 것 같네요.**

**이원재** 저는 3대째 화성에 거주하는 토박이예요. 우마차를 끌고 산능성이를 넘어 나무를 했던 시기부터 살았으니까요. (웃음) 자연을 좋아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팜(farm) 파티를 생각하던 도중 축제기획학교를 알게 돼 배움을 얻고자

신청하게 됐어요.

**신지영** 10년 전 결혼한 후 화성 우정읍으로 오게 됐어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라서 어촌 마을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업 현장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메일 뉴스레터로 지역의 소식을 확인하는데 마침 축제기획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참가했어요.

**김민숙** 2007년에 동탄에 터를 잡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군요. 마을에 눈길이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데 모여 복작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2018년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축제기획양성교 교육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배웠죠. 이제껏 제가 했던 것은 축제가 아닌 행사를 기획했다는 걸요.

**행사와 축제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김민숙** 우리가 '왜' 이 축제를 여는지 목적성이 명확해야 하더군요.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만 찾았을 뿐이었죠. 그것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됐어요.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결과물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2022년에 축제기획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 12시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신청서를 낸 기억이 나네요.



신지영



김민숙



이원재



지난해 시민기획축제의 이름은 환경을 주제로 한 ‘우리 동네 쓰레기, 미래에 빠지다’였다. 일명 ‘쓰레·빠 축제’였다. 김민숙 씨가 아이디어를 냈고 치열했던 경쟁 발표 끝에 최종안으로 낙점됐다. 아나바다 장터,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 보호 퀴즈, 친환경 그림 전시, 수공예 작가 판매 부스까지 축제에서 선보인 모든 퍼포먼스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관통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김민숙 9월 첫 주에 화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정말 많이 열렸어요. 저희가 계획한 축제일과 겹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지 걱정이 됐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제였고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축제여야 했는데

다른 곳에 가면 어쩌나 싶었죠. 다행인 점은 늦게라도 많은 분이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즐기고 가셨어요.

시민기획자들이 낸 아이디어는 재치 만점이었다. 참여자들은 축제의 이름처럼 쓰레빠(슬리퍼)를 신고 장바구니에 텀블러를 들고 오는 게 규칙이었다. 의도는 분명했다. 집 앞에서도 축제를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식이 전해지고,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흥겨운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9월 3일 치동천2호공원에서 열린 축제는 화성시문화재단 추산 2천여 명이 방문했다.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였다.

**참여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신지영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을에서 여는 지역 축제의 묘미인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점이 좋았죠.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도 즐기는 시간이었어요.

김민숙 주인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주인이 즐기는 축제였어요. 부스를 운영한 사람, 공연을 한 사람 모두 주인이었죠. 심지어 환경 퀴즈를 낸 사람도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생이었어요. 축제 이후로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계 환경 축제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의미 있는 축제가 확산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이원재 축제기획학교 교육을 통해 기획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참석을 못했지만 이를 통해서 축제라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서로가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의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해준 화성시문화재단 축제2팀은 모든 공을 시민기획자들에게 돌렸다.

김민숙 화성시문화재단은 개입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지켜봐주고, 도와주셨죠. 개인이 주최했다라면 빌릴 수 없었던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람까지 모을 수 있다니 제겐 속원 사업과도

같았던 일들이었죠.

이원재 동의해요. 축제 장소 섭외부터 행정, 기관 협조 요청까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본격적인 축제 시즌이에요. 화성에서 열리는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신지영 유명인을 섭외해서 사람들을 모으려 하지 않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어요. 축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해요.

이원재 제가 교육을 듣기 전에는 화성에서 열리는 축제가 이렇게 많든지

몰랐어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숙 축제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속되면 미래에는 화성의 문화로 자리 잡겠죠. 그걸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시문화재단은 ‘2023 화성시 축제기획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20여 명이 이룬, 실무 교육 후 시민기획축제 또는 정조 호 문화제 기획단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민기획자들이 올해에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ARCHIVE

# 이국적인 마리아나 팔딱이는 생기를 머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바다는 생명의 터전이다. 삶을 잇게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대자연 곁에서 전곡리 사람들은 근면하게  
어촌을 일구었다. 부지런히 일한 덕에 바다는  
풍요로워지고 활기로 가득 찼다. 전곡항은 짝조름한  
바닷내음이 넘실대고 팔딱이는 생기로 가득하다.  
서해와 맞닿은 서신면 전곡리의 천혜의 풍경을  
화성 뱃놀이 축제(6월 9~11일)가 열리는 전곡항을  
중심으로 담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김건우·박성환

## 세도가, 부잣집이 주를 이뤘던 전곡리

마을 지명에는 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 서신면 전곡리는  
벼슬아치와 부자가 많이 살아 앞실(前室)로 불렸다고 한다. 화성문화원의  
지명유래 자료에 따르면 전곡리는 본래 남양군 서여계면의 지역으로  
구봉산 앞 골짜기가 되므로 앞실 또는 전곡이라 칭했다.  
1914년 구릉내, 무두리, 은장동, 노가리, 독жат골을 병합하여 앞실의  
전(前)자와 계곡이 많다는 뜻에서 곡(谷)자를 합하여 전곡리가 됐다.



## 수도권 최대의 요트 계류지

서해안 연안을 따라 10여 개의 항구가 존재하는데 그중 서신면 전곡리의  
전곡항은 수도권 최대의 요트 계류지로 해양 레저 관광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다. 전곡항은 당성과 마산포가 있던 역사적 장소이다.  
항구는 촘촘히 즐 세워진 요트와 보트 덕에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방파제를 설치했고, 보트 200여 척이 항구를  
수놓고 있다.



전곡항의 명물,  
등대와 낙조  
방파제 끝 빨간색 등대는  
전곡항의 명물이다.  
나들이를 나온 가족은  
등대를 배경으로 단란한  
추억 사진을 남겼다.  
맞은편에는 바다의 살갗인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다.  
굴주린 갈매기는 매서운  
눈빛으로 먹이 사냥에  
열중이다. 특히 전곡항은  
낙조로 유명한 장소다.  
금빛 석양에 물드는 바다의  
서정적 낭만을 마주할 수  
있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지는 해를 붙잡으려  
애쓰는 모습도 당연한  
풍경이 됐다.



전곡항에서 바라보는 낙조  
© 경기도림도미디어



전곡항에 나들이 나온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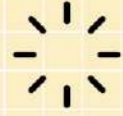


**지역 대표 축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주목**  
화성 뱃놀이 축제는  
정조효문화제와 함께 화성시  
축제의 두 축으로 각각 바다와  
육지를 대표하는 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2023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관광공사 지정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전국  
최고의 마리나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한 요트·보트 승선  
체험과 해상 및 육상 퍼레이드,  
바다와 육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물놀이 체험 행사, 전통어로  
방식인 독살 체험, 친환경 플로깅,  
야간공연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6월 9~11일에 개최 예정인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곡항 및  
제부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마음껏 즐겨보길  
바란다.

\* 참고문헌  
『2018 화성시사』  
『2020 화성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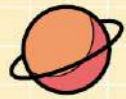


요트 승선 체험 © 화성시 포토갤러리



PEOPLE

# 화성인의 대답



인간관계에 있어 만남과 전화, 문자가 주된 소통의 방식이던 시절에는 소수의 친구와 깊은 친밀감을 쌓아갔을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면서 소셜미디어가 급속히 성장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관리해야 하는 관계의 숫자도 많아졌다.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인덱스를 붙였다 뗐다 하며 관계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의 '인덱스 관계'라는 말도 생겨났다. 분명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관계 또는 완전한 우연으로 이루어진 랜덤의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화성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분류하고 있을까? 화성인들의 인간 관계도가 궁금해졌다.

화성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분류하나요?”

SAND



이은주 | 학생  
기준은 없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끌리는 대로

나의 인간관계는 첫인상 30% 그리고 함께 지내며 공들인 시간 70%로 맺었다. 사랑할 사람일지, 좋아할 사람일지, 존경할 사람일지,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내야 할지, 나는 분류했다. 그렇지만 이제 내 나이 50대. 사람을 다 안다고 하기에는 교만하고, 사람을 아직도 모른다고 하기에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에. 인덱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마음과 시간이 중요하다. 관계의 효용성 그런 거 따지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시가 최고의 사람이 될 듯하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지만 인간관계, 카톡 친구 수가 아니라 얼굴 마주 보고 수다 나누고, 한 잔 차 마실 그런 사람이면 족하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차를 마신다. 내 배우자와 함께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자아자~



한송이 | 직장인  
인간관계도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나는 인간관계를 가끔 정리·정돈한다. 예를 들어 경조사 참석 여부, 연락에 바로 응답하는 경우와 응답이 없는 경우, 자주 만나는 빈도, 직장·가족·친척에 가깝고 먼 사람의 차이, 내가 자주 연락하는 즐겨찾기 그룹 등이다. 어릴 적엔 핸드폰에 연락처가 많았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경조사를 거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지금은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엄마,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 단순해졌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이제 기억조차 안 나는 사람, 굳이 사생활을 알려주기 싫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는 게 더 편해지는 것 같다. 모든 인간관계를 챙기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 가는가 보다.



이새미 | 프리랜서  
인간관계를 구분 짓는 두 가지 척도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

1.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
2.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혐오하는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직장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 타인을 따돌리거나 공공 횡령을 하는 사람들을 봤다. 이들은 어느 때나 기회만 오면 사람을 배신할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잘 대해줘서 그들의 선한 이미지에 현혹되어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악랄한 사람들은 내 주변을 맴돌며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젠가 내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타격해 몰락시킬 수 있다. 직장과 같이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인간적인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과도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은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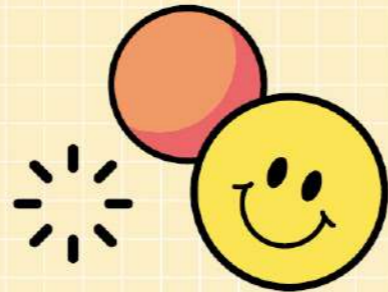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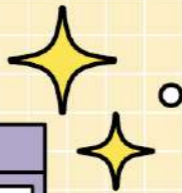
### 박종선 | 직장인

#### 나와 인접한 곳에서 찾는 교집합

직업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아 연락이 와도 약속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가 매우 좁다고 생각한다. 오랜 친구는 기껏해야 중학교 시절부터 지내온 대여섯 명이 전부였으며, 이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은 1년에 많아야 4~5번 얘기할 정도다. 연락할 때마다 오랜만이라는 안부보다는 아직 살아있냐는 다소 짓궂지만 친근한 인사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런데도 어색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익을 대로 익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다른 생각일지도 모른다)

이후 대학에 가서 만난 선·후배와 동기들이 있다. 선배들은 거의 1학년 때만 보고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하고 나서는 못 봤다. 자연스럽게 동기 및 제대한 후배들 위주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연락하는 학연도 네다섯뿐이다. 직장을 다닌 뒤 결국은 직장동료들과 어울리게 되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이직과 결혼, 연애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전 직장동료와 현 직장동료가 있긴 하다. 업무적으로 공감대가 많아서 그런지 대화가 적지 않다. 온라인 인간관계도 있다. 아파트 입주인 모임이다. 그중에서도 동갑내기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정보교류에도 도움 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관계다. 물론 실제로도 간간히 만나서 커피나 술도 한잔한다. 성격 좋은 사람들이다.

결국은 현재 나의 상황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에서 교집합을 찾게 되는 것 같다. 현재의 직장 또는 직업 네트워크, 거주지에 따른 지역 네트워크, 나이에 따른 세대 네트워크.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 이덕녀 | 주부

#### 지우는 것, 지워지는 것

무심코 핸드폰 연락처를 뒤적거려본다. 어지러이 널려 정리되지 않은 아들놈 책상 서랍처럼 어떤 관계들이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한다. 정리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한 사람을 끄집어냈다. '이, 사람으로 인해 내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던가? 아. 있었구나.'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른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날 지웠을지도 몰라' 냉정한 위로를 하면서 다음 사람을 호출한다. '이 사람은 날 웃게 했구나. 참 많이 웃게 했구나. 날 지우지 않았겠지!' 추측성 확신을 하면서 고이 저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낸다. 하루를 같이 있어도, 몇 시간 수다를 나눠도 지겹지 않으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면 너무 슬퍼서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사람 몇몇이 자리하고 있다. 나름 성공한 삶이네, 우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 임혜금 | 주부

#### 나의 카톡에 저장된 이름들

어느 날 카카오톡 목록을 주욱 들여다보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와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에 알았고 때론 친하기도 해서 서로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요즘 트렌드라는 '인덱스 관계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관계 정리 기준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로 정했다. 1년 이상 연락 안 한 사람 '숨김' 하기. 그중에 또 일부는 단호히 삭제하기. 하지만 망설여지는 일부는 일단 보류하기. 목록으로 보이는 친구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즈음에서 나의 인덱스 관계를 살펴보면 카톡 대화방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다.

우선 나의 지식들과 연관된 가족 채팅방(내게 가장 소중한 관계), 그리고 시댁 식구 대화방, 언니·오빠들이 포함된 친정 식구 대화방, 초등 시절부터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방,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학부모 대화방, 취미생활로 만난 사람들 대화방 등 지금까지 나와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에 속해 있다. 이 중에는 더 자주 만나고 마음을 공유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무리의 일부인 사람도 있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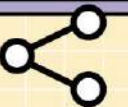
나이 들면서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한다. 다만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산다.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만났을 때 행복한 소수의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 김정우 | 직장인

#### 행복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평소에 SNS에 큰 관심이 없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정도만 사용하고 있던 차에 이번 주제를 접하면서 처음 '인덱스 관계'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혈연, 지연, 학연을 바탕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시지로 소통하던 예전 인간관계에서 이제는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으로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다수와 소통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나이에는 자의든 타의든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과연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지만, 나의 관계 분류 기준은 첫째, 자주 얼굴 보며 주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이다. 둘째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목적 지향으로 만나고 있는 동호회원들이다. 셋째는 내 하루의 절반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만남의 기회가 넓어진 만큼 여러 종류의 관계가 생겨나지만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다.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독자 공모 바로가기



'PEOPLE'은 매호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글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호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지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선물과 함께 《화분》 지면에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세요.

CULTURE & ISSUE

# 화성시문화재단 상반기 문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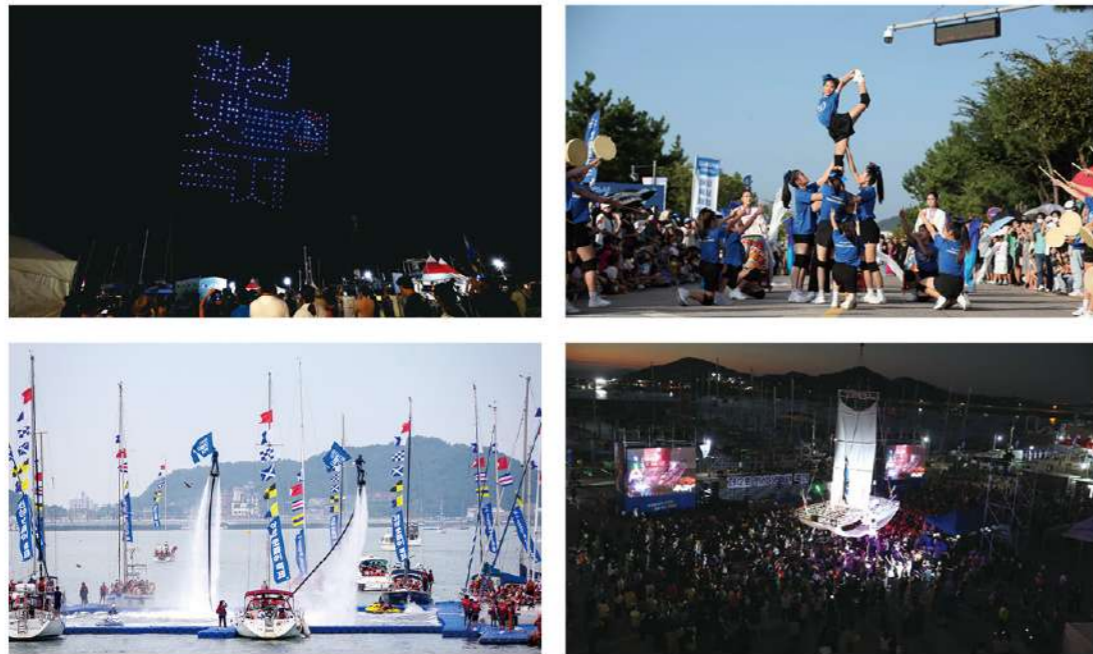
## HCF NEWS

2023. April ~ June

축제

### 낮부터 밤까지 즐기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초여름의 더위를 식힐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6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전곡항 및 제부도 일대에서 열린다. 본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관광축제,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축제로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축제 최초로 밤바다 승선 체험을 진행하며,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상 케이블카와 제부 마리나를 연계하여 다채로운 요트 승선 체험을 선보이고, 수상 스테이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해상 파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시민의 열정으로 거리를 채우는 '바람의 사신단 시민 댄스 퍼레이드'도 한층 확대되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중가수 공연, 야간 프로그램, 플로깅, 독살체험, 어촌마을체험, 수상 무동력기구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연계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시민 참여도 확대하여 주민(Zoom in) 버스킹 참가팀을 5월 중에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뱃놀이축제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축제1팀 031-290-4621

전시

### 예술가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 2023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개관전

화성시문화재단은 4월 29일(토)부터 7월 30일(일)까지 동탄호수공원 인근 복합문화공간 '라크몽'에서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의 첫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개관을 알리는 첫 전시는 화성 지역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로 김미경, 김미자, 김원기, 김현중, 나혜옥, 박석윤, 안유선, 오시수 작가의 다양한 회화 작품과 설치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소개했던 지역 원로작가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유망한 신진작가의 작품을 두루 다룬다. 또한 관람객이 작가의 작품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링, 만들기 등의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할 예정이다. 재단은 상반기 화성 지역작가 전시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체험형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은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전시운영팀 031-290-4614

### 너는 나의 봄이야 '제14회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화성시문화재단은 5월 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탄호수공원에서 '2023 제14회 화성시 가족사랑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수변공원과 어우러진 친환경 체험, 시민 참여 동아리공연,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오감 만족 축제로 진행된다. 호수공원 운담원에 마련되는 주 무대에서는 관내 학생 댄스동아리, 어린이 합창단, 시민 참여 풍물패 공연이 열린다. 이외에도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 이벤트와 화성시 전문예술인 공연과 아트벌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과 이벤트 등 즐길 거리 또한 풍성하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꿈마차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친환경 캠페인, 공예 체험, 어린이 안전 체험 등이다. 가족사랑축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공개방송에는 가창력이 뛰어난 R&B 발라드 가수 거미, 화성시가 고향인 가수 안치환, 경서예지, 김동현과 팝페라 그룹 꽃보다남자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루나 분수쇼로 공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축제 당일에는 오후 9시부터 루나 분수쇼를 시작한다.



문의 : 축제2팀 031-290-4626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예술인학교 연구TA' 8개 그룹 성료**

2022년부터 진행한 예술교육가 연구과정 '예술인학교 연구TA' 사업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본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교육가 그룹이 학습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TA'는 'Teaching Artist'의 약자로 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예술 교육가를 뜻한다. 연극, 음악, 미술, 국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TA들은 1기 2그룹, 2기 2그룹, 3기 4그룹으로 총 8개 그룹이다. 이들은 주제 선정, 지역과 대상 연구, 리서치 및 인터뷰, 모의 수업 및 교안 개발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매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연구 과정 멘토 컨설팅 및 간담회를 거치며 한층 성장했다. 연구 그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어린이, 가족, 중년 여성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화성시 곳곳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 예술인지원팀 031-290-4603

**Let's PLAYEUM!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시작**

화성시문화재단은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의 14개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작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 활동을 매개로 시민을 만나는 '플레이엄'은 움직임, 미술, 연극, 음악, 문학, 인문,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화성시 1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분야·키워드	운영
아리랑 동동	두드림, 움직임	향남읍
예술가의 시선	움직임, 미술, 음악	봉담읍
폐자원으로 노는 예술가	공예, 업사이클	장지동
멈춤!예술	커뮤니티댄스	동탄2, 남양읍
프로젝트 조암요일장	미술, 미디어	우정읍
Drawww/ing	시각, 인문학	팔탄면
예술비스트로 시즌 2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양감면
플레이투미췌	문학, 음악, 시각, 기술	기산동, 매송면
감성의 발견	미술	남양읍, 봉담읍, 향남읍
소리아 놀자	음악	목동
나는 거리예술가	퍼포먼스	반송동
뮤직가드닝	음악	반송동, 청계동
아이메이커	소리, 움직임, 연극	기배동
신바람 시니어살롱	미술	매송면

문의 : 예술교육지원팀 031-290-4691

**예술가·어린이의 예술 가치 찾기 프로젝트  
2023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같이놀이터'**

예술교육지원팀은 3월 25일(토)부터 4월 29일(토)까지 남양읍 창문아트센터에서 화성시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2023년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같이놀이터 <시즌1 : 봄놀이터>를 진행한다. '같이놀이터'는 화성시 서남부권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가들과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한다.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어울려 예술 창작활동을 하며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는 예술 가치 찾기 프로젝트이다. 생태 미술을 콘셉트로 하는 이번 봄놀이터는 예술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며 자연과 사람,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담아내는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예술적 감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이놀이터'는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운영 대상과 참여 예술가들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7~8월에는 맛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궁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에서 <시즌2:여름놀이터>



문의 : 예술교육지원팀 031-290-4693

**화성예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3 예술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는 '2023 예술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5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예술인들이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됐다. 5월 9일(화) '예술교육 아카데미', 6월 20일(화) '예술기획 아카데미', 8월 8일(화)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 9월 26일(화) '회계실무 아카데미'로 총 네 가지 교육이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가인 이계원 알투스 통합예술연구소 대표, 김혜진 연출기획 전문가, 이영옥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변호사, 오도환 오도환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각 과목별 교육을 맡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예술인지원팀 031-290-4604

### 화성시문화재단 4~6월 일정표

월	구분	건명	일정(안)	장소
4월	전시	가정의 달 기획전시 <앤서니 브라운의 원더랜드 뮤지엄 展>	3. 30(목) ~ 5. 17(수)	동탄아트스페이스스퀘어
	공연	연극 on stage <붉은낙엽>	4. 1(토) 17:00	반석아트홀
	강연	장진철 작가와의 만남	4. 8(토) 10:00	삼괴도서관
	강연	정주희 작가와의 만남	4. 8(토) 10:00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공연	아동 뮤지컬 <돌맹이를 삼킨 호랑이>	4. 15(토) 14:00	송산도서관
	전시	생활문화센터 입주 창작자 전시 <봄 : 또 다른 시작 I 展>	4. 18(화) ~ 4. 27(목)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강연	김윤정 작가와의 만남	4. 19(수) 10:00	샘내작은도서관
	강연	신해진 작가와의 만남	4. 22(토) 10:00	봉담도서관
	행사	입주창작자 특별강좌 <펜+수채화 - 어반스케치>	4. 27 ~ 6. 1(매주 목요일) 10:00 ~ 12:00 / (6회)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공연	인형극 <수영장에 간 아빠>	4. 29(토) 14:00	왕배푸른숲도서관
공연	키즈콘서트1 <뮤직 in 애니메이션>	4. 29(토) 15:00	누림아트홀	
공연	[방방곡곡문화공감]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	4. 29(토) 17:00	화성아트홀	
5월	전시	가정의 달 기획전시 <앤서니 브라운의 원더랜드 뮤지엄 展>	3. 30(목) ~ 5. 17(수)	동탄아트스페이스스퀘어
	전시	가정의 달 기획전시 북 큐레이션 <앤서니 브라운>	5. 1(월) ~ 5. 31(수)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전시	생활문화센터 입주 창작자 전시 <봄 : 또 다른 시작 II 展>	5. 2(화) ~ 5. 29(월)	해상케이블가 서해랑 (제부정류장 아트갤러리)
	공연	Youngster <이은결 스페셜>	5. 5(금) 14:00	반석아트홀
	행사	홍사옹 문화거리 <시민기획 문화예술행사>	5. 6(토) ~ 6. 24(토) 매주 토요일	홍사옹문화거리
	강연	임은하 작가와의 만남	5. 6(토) 14:00	진안도서관
	공연	[Music Stay]어버이날 기념 트로트 콘서트 <황금빛 내 인생>	5. 7(일) 14:00	화성아트홀
	축제	제14회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5. 13(토)	동탄호수공원
	공연	뮤지컬 <해리엇> & 한윤섭 작가와의 만남	5. 13(토) 14:00	송산도서관
	강연	[달달이 인문학]김영하 작가와의 만남	5. 13(토) 14:00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6월	공연	[Music Stay]콘서트 <반석산 피크닉 : 김현철 & ADOY>	5. 13(토) 18:00	아외공연장
	공연	[화성시 청년예술단] HYA플리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Play List>	5. 19(금) 19:30	아외공연장
	행사	수공예 아트마켓 <생활시장화인> 1회차	5. 20(토) 13:00	항남2지구 1호광장
	공연	[방방곡곡문화공감]뮤지컬 <년센스>	5. 20(토) 14:00 / 18:00	화성아트홀
	공연	가족인형극 <도치의 모험>	5. 21(일) 11:00	노을빛도서관
	공연	전통 on stage <오버더테창 : 문전본풀이>	5. 27(토) 17:00	누림아트홀
	공연	키즈콘서트2 <클래식 in 발레>	5. 31(수) 17:00	반석아트홀
	전시	생활시장화인 공방작가 연계 전시 <작가 華인(화인)>	미정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행사	2023 생생문화제 <독립의 함성 따라, 만세길 시간 탐험>	5. 27(토) ~ 5. 29(월)	화성3.1운동만세길 일대
	행사	홍사옹 문화거리 <시민기획 문화예술행사>	5. 6(토) ~ 6. 24(토) 매주 토요일	홍사옹문화거리
6월	전시	생활문화센터 입주 창작자 전시 <봄 : 또 다른 시작 III 展>	6. 1(목) ~ 6. 15(목)	롯데백화점동탄점 이벤트 전시장
	공연	전통 on stage <허길동전>	6. 3(토) 17:00	누림아트홀
	강연	[달달이 인문학]권일용 작가와의 만남	6. 3(토) 14:00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전시	[화성예술지원 선정 전시]김기태 개인전 <베일의 꿈>	6. 8(목) ~ 6. 14(수) 10:00 ~ 17:00	동탄아트스퀘어
	축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6. 9(금) ~ 6. 11(일)	전국항 및 제부도 일대
	공연	[Music Stay]콘서트 <비오 x 오반 Run the Beat>	6. 10(토) 19:00	아외공연장
	행사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본선 경연	6. 10(토)	제부도
	공연	[Music Stay]무순실합주 : Night(너드캐렉션 김뜻돌) & Day(럼블피쉬, 나상현씨밴드)	6. 16(금) 19:30 / 6. 17(토) 17:00	아외공연장
	행사	수공예 아트마켓 <생활시장화인> 2회차	6. 17(토) 13:00	동탄썬크공원

#### 소식

#### 수공예 아트마켓 등을 이끌어갈 2023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 시민운영자 선발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 3월 22일(수)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 시민운영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생활시장 화인은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공예 아트마켓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아트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화성시의 생활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생활문화 작가인 시민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33개 공방의 34명이 위촉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화성시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번갈아가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총 6회가 개최된다. 이외에도 관내 공방을 직접 시민이 방문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색 공방체험 '공방 가는 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 '작가 화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생활문화팀 031-8059-1766

#### 공연

#### 판소리 합창의 세계로 빠져들다 [전통 on stage] 오버더테창 : 문전본풀이

5월 27일(토) 오후 5시 누림아트홀에서 판소리 합창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연 '오버더테창 : 문전본풀이'가 찾아온다. 관중이 모인 판에서 부채를 든 한 소리꾼이, 북 반주로 장단을 만드는 고수와 함께 노래(소리), 말(아니리), 몸짓(발림)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판소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다. 본 공연은 가정의 위기를 가족의 힘으로 이겨내는 이야기로, 집의 부역, 변소, 울레 또는 오방의 토신과 문전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무속 신화이다. 가난한 것 빼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나누고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사는 가족, 이 가족이 해체되는 순간과 이를 마주하는 과정으로 가족 간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체면치레와 이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아버지 '남선비'와 순종적인 어머니 '여산부인'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의 : 공연예술팀 1588-5234

LETTER

#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왕배도서관에서 만났어요.  
화성시에 상거 10년이 넘었는데  
2022년 겨울에 처음 발견한 거 있죠?!!?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화분의 발견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화성 푸리에 문화 컨텐츠 공간 도록이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있길래...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책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  
위한 컨텐츠.. 기대합니다.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책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두 있는  
일이 입니까요?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일 도와주세요.

**RE : 편집부** 정성스럽게 써주신 후기는 저희에게도 큰 행복이 됩니다. ^^\* 콘텐츠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집부가 되겠습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태안도서관.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매우 좋다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완벽한 연말연시를 위한  
겨울 데이트 코스 ~ ♡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분기별 공연프로그램 안내. 일정표.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우편으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 : 편집부** 앞으로도 화성시에서 열리는 풍성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화분>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웹진 내 구독 신청 또는 편집부로 문의 바랍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독자 업서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HCF MAGAZINE 2023  
봄과 여름 사이 VOL.58

PLACE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 031-8015-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리아트홀
- 제부도 아트파크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서연이음터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림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 노을빛도서관

작은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화관
- 화성ICT생활문화센터
- 모두누리센터
- 유엔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뜰
- 카페오키페

호텔

- 라비도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 갤러리문화아지트
- 신자연주의공방
- 공방 7보다
- 동탄제로웨이스트샵 새바른상점
- 서울건치과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료지입니다. 배송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웹진 내 구독 신청 또는 편집부로 문의 바랍니다.

# 《화분》 화성인의 도전 독자 참여 이벤트

《화분》 신규 콘텐츠 'DRAW'  
우편으로 전하는 독자 후기 'LETTER'  
화성인의 생각을 전하는 'PEOPLE'

DRAW	LETTER	PEOPLE
<p>컬러링 참여 화성인에게는 무럭무럭 자라는 화분 키트를 보내드립니다.</p> 	<p>엽서로 후기를 보내주신 화성인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p> 	<p>매호 주제에 맞는 글을 보내주시는 화성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p> 

콘텐츠별 랜덤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합니다.



《화분》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독자엽서를 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2. 주소 및 연락처, 설문내용을 작성해주세요
3. 점선표시에 맞춰 엽서를 접어주세요
4. 엽서를 접은 상태에서 접착되는 면을 아래로 내려서 풀 또는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접어주세요

접하는 곳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4.22~2024.4.21

화성동탄우체국  
제400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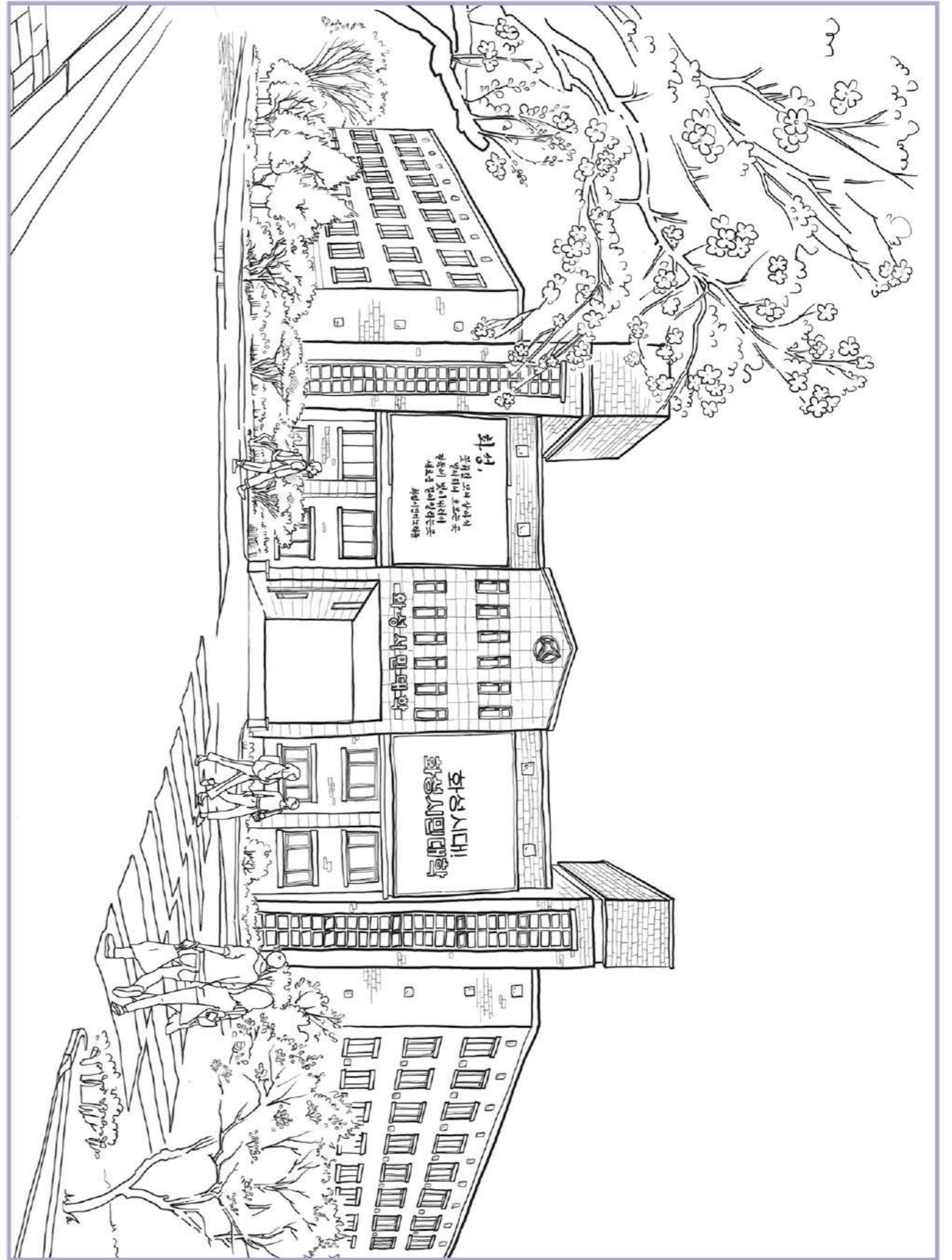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노적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화분>담당자

1 8 4 5 9

접어주세요





나만의 상상력으로 색을 채운 후 6월 20일까지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보내실 곳 : hcfnewsletter@naver.com

틀 또는 타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교양지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업서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평이디 재킷은 염색 및 배합 과정에서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